

주간 전남 농업

VOL. 241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7월 둘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이삭거름 주는 시기 늦추고 쌀 품질 높이고..
정책동향 및 홍보 “스마트팜 산업 발전 위한 발판 다진다”
전남 시군 농정 동향 나주시, 고추 바이러스 ‘칼라병’ 급증 ... 방제 철저 당부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9. 07. 08.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남농기원, 멜론 수경재배 스마트 양액관리기술 개발 나서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n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20 ~ 22도, 최고기온 : 26 ~ 31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6 ~ 20mm)보다 많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6

- ▶ 채소 : (예보)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등
- ▶ 과수작물 : (예보) 탄저병·사과갈색무늬병·점무늬낙엽병 등

3. 농산물 관측정보 7

- ▶ 감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4

- ▶ 전남농업기술원, 유자 300만 달러 중국 수출 업무협약 체결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6

- ▶ 이삭거름 주는 시기 늦추고 쌀 품질 높이고...
- ▶ 논콩, 집중호우 대비 병 예방과 물빠짐 관리
- ▶ 농촌진흥청, 경남 밀양서도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확인
- ▶ 방목장에도 그늘이 필요해요
- ▶ 여름철 시설하우스 관리 ‘공기순환빛가림’ 중요
- ▶ 비바람 불기 전, 과수원 나무 관리해요
- ▶ 전남농기원, 멜론 수경재배 스마트 양액관리기술 개발 나서
- ▶ 전남농기원, 고추 흰비단병 철저한 예찰과 방제 당부
- ▶ 전남농기원, 풀무치 이용 반려견 보조사료 개발 나서

7.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7

- ▶ “스마트팜 산업 발전 위한 발판 다진다”
- ▶ 아토피 완화하는 토종 유산균, 치즈로 먹어도 효과
- ▶ 전남도, 7월 전통주에 담양 죽향도가 ‘천년담주’
- ▶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농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 ▶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 농업박람회 성공 퍼포먼스
- ▶ 전남도,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복구 91억 지원
- ▶ 독일산 돼지고기 현물확인, 정밀검사 등 검역강화

- ▶ 양파, 마늘 소비촉진을 위해 농림가족이 나섰다!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5

- ▶ 나주시, 서울에서 플럼코트 등 농산물 신품종 판촉 행사 진행
- ▶ 나주시, 고추 바이러스 ‘칼라병’ 급증 ... 방제 철저 당부
- ▶ 나주시,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용 48억 원 확정
- ▶ 보성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전 공동방제 추진
- ▶ 화순군, 달고 아삭아삭한 초당옥수수 수확
- ▶ 화순군, 연정영농조합 친환경채소 전문단지 공모 선정
- ▶ 영암군, 시설하우스 고온스팀 토양소독으로 친환경 농업 앞당겨
- ▶ 영암군,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영암멜론” 본격 출하

9. 해외 농업정보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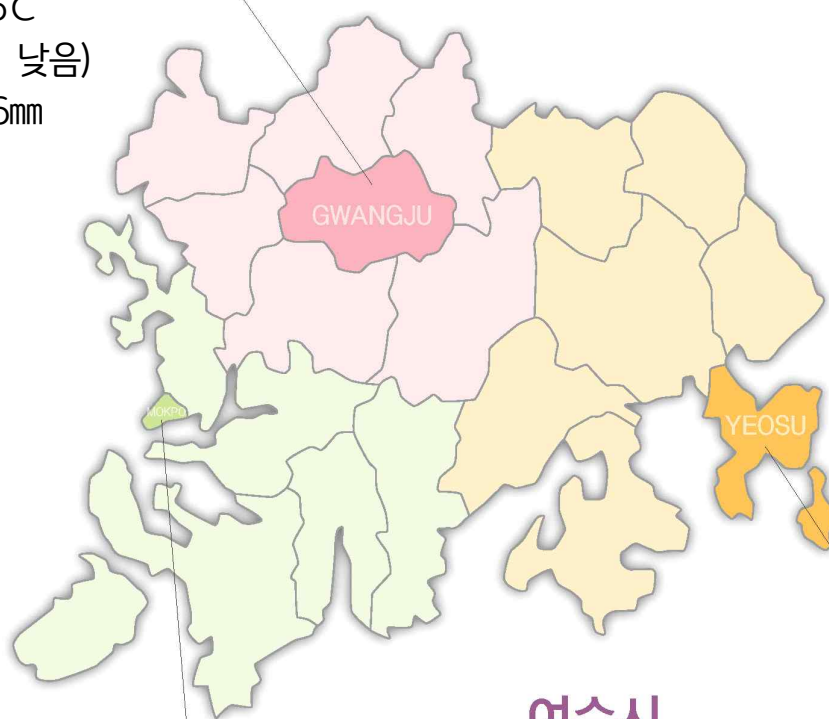
- ▶ 2019년 7월 일본 주요 채소 생육상황 및 가격전망
- ▶ 미국 신선식품 시장 증가세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7. 08. 시카고 선물거래소)

10. 농식품 빅데이터(법령)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50

- ▶ 농림축산식품부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5.5℃
(평년대비 0.7℃ 높음)
- 최고기온 : 29.4℃
(평년대비 0.9℃ 높음)
- 최저기온 : 21.6℃
(평년대비 0.4℃ 낮음)
- 강 수 량 : 15.6mm



목포시

- 평균기온 : 24.9℃
(평년대비 1.0℃ 높음)
- 최고기온 : 28.3℃
(평년대비 1.1℃ 낮음)
- 최저기온 : 21.6℃
(평년대비 0.1℃ 낮음)
- 강 수 량 : 11.7mm

여수시

- 평균기온 : 24.1℃
(평년대비 0.6℃ 높음)
- 최고기온 : 26.4℃
(평년대비 0.3℃ 높음)
- 최저기온 : 21.7℃
(평년대비 0.2℃ 높음)
- 강 수 량 : 12.6mm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했으니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기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기관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 예 보	병	· 벼잎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감자역병
		해충	· 먹노린재, 멸구류 등
채소	· 예 보	병	· 역병, 탄저병, 바이러스병, 덩굴마름병·뿌리혹병,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해충	· 응애류,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진딧물류 등
과수작물	· 예 보	병	· 탄저병·사과갈색무늬병·점무늬낙엽병, 복숭아세균구멍병·갯빛무늬병, 포도갈색무늬병, 포도 새눈무늬병·갈색무늬병·노균병 등
		해충	·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진딧물류, 잎말이나방, 감꼭지나방, 깍지벌레류 등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월 감자 가격 전년보다 약세 전망





감자

6월 감자 가격 전년 대비 약세

- 6월(6.1.~27.) 수미 도매가격(상품 기준)은 20kg당 19,596원으로 전년 대비 19.0%, 평년 대비 13.8% 하락하였다.
- 수미 가격은 노지 봄감자 생산량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보다 낮게 형성 되었다.
- 순별 가격은 상순에 전남지역 출하량이 급증하면서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이 컸던 반면, 하순에는 충남지역 출하가 지연되며 가격이 소폭 회복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 6월(6.1.~26.) 가락시장 수미 일평균 반입량은 노지 봄감자 출하량 증가등으로 전년 대비 6.9%증가한 464톤이었다.
- 반입량은 노지 봄감자 재배면적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 하였으나, 충남지역 작황부진에 따른 출하 지연으로 재배면적 증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노지 봄감자 생산량 전년 대비 20% 증가 전망

- 2019년 5월 감자 수입량은 전년 대비 23.3% 증가한 1만 4,811톤이었다.
- 통계청 재배면적 발표치(6.26.)와 농업관측본부 예상 단수를 고려한 노지 봄감자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5%, 평년 대비 21.5% 증가한 46만 4,177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랭지감자 생산량 전년보다 32% 증가 전망

-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전년 대비 32.2% 평년 대비 10.5% 증가한 12만 1,345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수미 감자 출하량은 노지 봄감자 생산량이 증가한데다, 준 고랭지 재배 면적도 늘어 전년 대비 2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수미 도매가격(상품)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하락한 20kg당 1만 5천 ~1만 8천 원 내외로 전망된다.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 전년 대비 7% 증가

- 농업관측본부 감자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 가을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전년주출하기 가격 강세로 전년대비 6.8%, 평년 대비 74.0% 증가한 2,651ha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전남과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가을감자 주출하기 가격 강세로 재배의향이 높은 편이나, 감자가 연중 출하되는 밀양 등의 일부지역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7. 08. 기준 / 단위 :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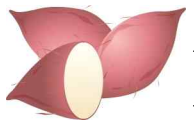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20kg	48,980	48,980	↑	7.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180	45,420	39,533	↑	23.9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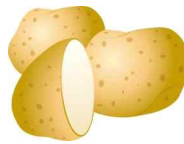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35kg	198,200	198,200	↑	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7,200	181,600	154,600	↑	28.2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0kg	30,600	32,800	↓	2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900	43,150	34,740	↓	11.9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20kg	20,800	24,700	↓	2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850	29,450	25,790	↓	19.3

채소류

배추(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0kg	6,800	7,600	↓	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55	6,950	6,612	↑	2.8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8kg	6,200	6,200	↑	18.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50	5,215	5,785	↑	7.2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00개	43,667	33,000	↓	17.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583	53,083	42,465	↑	2.8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20개	12,200	13,400	↓	2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875	15,600	14,390	↓	15.2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30kg	560,600	563,600	↓ 6.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68,600	600,000	367,667	↑ 52.5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20kg	95,000	95,000	↓ 2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5,000	125,000	125,000	↓ 24.0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20kg	31,000	31,400	↓ 28.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1,300	43,630	31,540	↓ 1.7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5kg	13,000	14,200	↓ 2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800	16,760	14,710	↓ 11.6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0kg	16,800	16,700	↓ 4.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600	17,600	15,343	↑ 9.5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0kg	37,200	36,600	↓ 7.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900	40,400	38,330	↓ 2.9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20kg	8,400	8,800	↓ 3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250	12,950	16,310	↓ 48.5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kg	1,560	1,62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40	1,500	1,519	↑ 2.7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개	17,800	16,200	↑ 2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525	14,580	14,187	↑ 25.5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5kg	14,000	14,200	↓ 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450	14,100	12,477	↑ 12.2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0kg	42,400	41,800	↑ 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650	38,000	42,100	↑ 0.7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5kg	65,600	61,400	↑ 8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150	34,800	48,253	↑ 36.0

참다래(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0kg	41,800	41,600	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800	41,800	43,733	↓ 4.4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00g	8,350	7,907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981	8,269	7,514	↑ 11.1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kg	5,168	5,228	↑ 8.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20	4,786	5,271	↓ 2.0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30kg	498,600	498,600	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9,200	498,600	526,333	↓ 5.3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2kg	12,400	12,400	↓ 1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650	14,900	14,307	↓ 13.3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2kg	6,400	6,600	↓ 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200	7,082	7,681	↓ 16.7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00g	1,946	1,937	↓ 1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86	2,200	2,210	↓ 11.9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30개	5,144	5,131	↑ 2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90	4,078	5,713	↓ 10.0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7/8)	1주일전 (7/1)	전년대비	
1L	2,616	2,616	↑	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7	2,528	2,542	↑	2.9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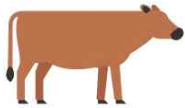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7. 08. 기준 /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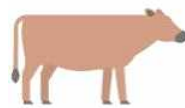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18	5,526	5,551	↑ 1.7	↑ 1.2
거세	6,982	6,891	6,840	↑ 1.3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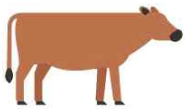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383	3,426	3,104	↓ 1.3	↑ 9
수	4,301	4,260	4,023	↑ 1	↑ 6.9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284	3,079	3,41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6.7	↓ 3.7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73	451	271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9	↑ 74.5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91	371	45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4	↓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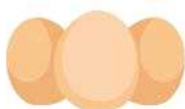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77	1,000	1,45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3	↓ 32.9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17	1,028	75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1	↑ 34.7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2,1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1.3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전남농업기술원, 유자 300만 달러 중국 수출 업무협약 체결

- 유자수출개척단, 유자 수출 경쟁력 향상에 박차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유자수출시장개척단은 중국 광저우, 우한, 상하이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중국 무역업체 2개사(통순무역, 상해건화은국제무역유한공사)와 유자 30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5일 밝혔다.
- 유자수출시장개척단(단장 김덕현)은 전남도 특산물인 유자 가공제품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시장에서 잘 팔리는 유자상품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기호도, 식품안전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유자수출시장개척단은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출연구사업단의 기획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유자 생산, 가공, 마케팅, 수출 전문가 등 7명으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개척단은 유자수출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략을 제시했다.
- 첫째, 생산측면에서 국내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수출전문조직체를 육성하고 조직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고품질의 묘목을 보급해야한다. 또한, 종합 컨설팅으로 수입국가에서 요구하는 농산물 안전성을 준수하는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고품질의 유자를 생산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 둘째, 가공분야에서는 소비시장에서 선호하는 유자차를 개발하기 위해 일정 품질수준 이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프리미엄 상품을 생산하고, 유자 과피 및 씨의 추출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가야한다.
- 또한, 유자 가공업체들이 고품질의 유자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원물에서 제품의 생산까지 공정을 표준화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QC)를 해야 한다.
- 셋째, 수출마케팅측면에서는 현재 한국산 유자차는 중국시장에서 많은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으나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개발 및 통합수출조직을 육성하여 수출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유자와 같은 전남의 신선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마늘·양파 등의 노지채소 과잉생산으로 산지폐기하는 대신 수출을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이삭거름 주는 시기 늦추고 쌀 품질 높이고...

- 이삭패기 15일 전 뿌리면 완전미율 높아져... 양 조절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를 제시했다.
- 이삭거름은 쌀의 단백질 함량과 완전미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삭패기 15일 전에 주면 고품질 쌀 생산에 유리하다.
- 이삭패기 25일 전에 주면 속이 차지 않은 벼 알이 너무 많이 달리게 돼 쌀 품질이 떨어진다.
- 반면 15일 전에는 이삭 일부가 퇴화되면서 적당한 벼알수를 유지하고 벼 알 크기도 커져, 이때 거름을 주면 전분이 충분하게 채워져 벼 알이 충실하고 완전미율이 높아져 쌀 품질이 향상된다.
- 이삭거름 중 질소 성분은 쌀 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지만 쌀 단백질 함량을 높여 품질 향상에는 좋지 않다. 따라서 거름 주는 양도 조절해야 한다.
- 고품질 쌀 생산 시 농촌진흥청 표준 거름을 주는 양에 따르면 질소는 10a당 성분량 기준 9kg이며, 이 중 이삭거름은 30%인 2.7kg 수준이다.
- 이삭패기 전 25일보다 15일에 이삭거름을 주면 현미 천 알의 무게는 0.7g, 완전미율은 3.2% 늘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논콩, 집중호우 대비 병 예방과 물빠짐 관리

- 침수 대비 논 배수로 정비·토양병 발생 시 대처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논콩 재배 시 집중호우로 인한 습해와 토양병 예방을 위한 배수 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 콩 생육 초기, 많은 비로 작물이 잠기는 등 과습 피해를 입으면 수량이 줄 수 있어 적절한 물 관리가 필요하다.
- 논은 밭과 달리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뿌리 호흡이 어려우므로 콩을 재배할 때는 물 빠는 길(배수로)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
- 배수로는 논 가장자리를 따라 만들고, 가운데에는 십(十) 또는 우물 정(井) 형태로 물길을 낸다.
- 물에 잠겼다면 24시간 안에 빼내야 한다. 앞에 묻은 흙은 씻어내고 옆면에 비료1)를 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심은 이랑은 밭에서 재배할 때보다 20cm 정도 높게 만든다.
- 논콩 재배 시 논이 물에 잠기면 과습 피해로 뿌리가 썩거나 지상부가 시든다. 또한, 검은뿌리썩음병, 시들음병, 역병 등이 발생하기 쉽다.
- 검은뿌리썩음병에 걸리면 식물체 상부의 잎이 누렇게 변해 마르고, 식물체를 뽑아보면 잔뿌리 없이 검게 썩어 있다. 배수가 불량하거나 지하수면이 높은 논에서 수년간 콩을 연작할 때 피해가 심하다.
- 시들음병은 잎이 누렇게 변하여 시들고 줄기를 갈라보면 관다발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색이 되어 있다.
- 역병은 식물체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시들며, 땅에 닿은 줄기부위가 검은색으로 변하며 썩게 된다. 배수가 불량하거나 침수된 포장에서 발생이 많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경남 밀양서도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확인

- 일출 전 · 일몰 후 방제해야 효과 높아...여러 약제 번갈아 사용 권장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난 28일 전남 여수, 해남, 보성과 내륙지역인 경남 밀양의 옥수수 재배포장(밭)에서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을 확인했다.
- 우리나라에서 열대거세미나방은 지난 13일 제주 동부 구좌읍과 조천읍에서 첫 발생이 확인된 뒤 전남 무안, 전북 고창 등 서·남해 지역 일대에서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 발생현황: 제주(6.13.), 전남 무안(6.19), 전북 고창(6.21.), 전남 여수·해남·보성·경남 밀양(6.28)
- 열대거세미나방 암컷 성충 한 마리가 최대 1,000개의 알을 낳고, 바람을 타고 하룻밤에 100km이상 이동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서·남해 지역 외 옥수수 주산지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에서도 발생이 우려된다.
- 현재까지 어린 옥수수(옥수수 한 줄기에서 난 잎이 10장 이하) 이외 다른 농작물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대거세미나방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수, 생강, 벼 등 다른 벼(화본)과 식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 열대거세미나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등록된 약제를 이용해 신속하고 올바른 방제작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 애벌레의 발육단계가 낮을수록 방제효과가 높다. 특히 2~3령 애벌레는 주로 옥수수 포엽(어린 잎 부위)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제가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살포해야 방제효과가 크다.

- 애벌레와 성충은 모두 야행성 이므로 방제작업은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하는 것이 좋다.
- 방제작업에 사용하는 약제는 인독사카브 또는 클로란트라닐리프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권장한다. 또한 한 가지 약제를 사용하기보다 작용 기작이 다른 약제를 여러 개 번갈아 사용하는 편이 좋다.
- 열대거세미나방 방제에 필요한 등록약제 정보는 '농사로 (www.nongsaro.go.kr)-농약정보-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열대거세미나방은 2016년 아프리카에서 처음 확인된 뒤 동남아시아 지역(2018년)으로 확산됐다.
- 올해 1월 중국 남부 운남성에서 발생한 뒤 6월 말(6.26)까지 광둥성, 강서성, 절강성, 산둥성 등 19개 성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정부혁신 참여협력'의 가치를 반영하고자 중국의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정보를 확인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방제농약 사전등록과 예찰방제 지침사항을 공유했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옥수수 외 다른 작물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 농촌진흥기관에 예찰과 방제 강화를 당부하고 있으며, 열대거세미나방 조기 발견을 위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방목장에도 그늘이 필요해요

- 퇴약별 피할 그늘막과 간이 급수기 설치로 충분한 물 공급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방목 가축이 여름철 퇴약별 아래 활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축 방목은 친환경, 동물복지를 지향하는 사육 방식으로, 노동력과 사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 그러나 더운 날씨에 물을 제때 마시지 못했거나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
- 방목장은 상수도나 지하수를 이용하기 어려운 산지가 많다. 이로 인해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는 등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이때 간이 급수기를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 수조(물탱크)에 빗물을 받거나 식수를 채워 급수조에 연결하면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 앞서 농촌진흥청은 방목 가축에게 물을 꾸준히 공급하는 급수 시스템을 개발했다
- 방목장 주변에 햇볕을 피할 곳이 없다면 그늘막을 설치한다. 무더위나 태풍 등을 피해 가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류재규 가축질병방역과장은 "간이 급수기와 그늘막 설치로 방목 가축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여름철 시설하우스 관리 ‘공기순환·빛가림’ 중요

- 시설 내 온도 저감 시설 설치하면 생산성 · 경제성 올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고온 피해 최소화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 공기순환 팬 설치 = 7~8월은 자연 환기를 해도 내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내부에 공기순환 팬을 설치하고, 환기창을 최대한 열어두고 강제 환기를 한다. 이때 측창(시설하우스 벽면 쪽에 낸 창)과 천장을 열면 내부의 더운 공기가 외부로 쉽게 빠져나간다.
- 빛가림(차광) 시설 설치 = 시설하우스 외부에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차광 도포제를 뿌려 비닐하우스 내부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준다. 차광막을 사용할 경우, 고정된 차광막보다 날씨가 흐리거나 일조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여단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자동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검은색 차광막은 자재비용이 저렴하지만, 태양열을 흡수해 시설하우스 내부온도를 높인다. 따라서 흰색의 필름 소재로 열을 막는 차열망(쿨네트)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충남 청양군의 방울토마토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 기술' 시범사업을 적용했다.
- 차광막, 다겹커튼, 공기순환 팬, 안개분무시설 등 시설하우스 내 온도를 낮추는 시설을 하나로 묶어 농가에 적용했다. 그 결과, 수확 기간 연장과 손실 최소화로 설치 전보다 생산성은 30%, 경제성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비바람 불기 전, 과수원 나무 관리해요

- 농촌진흥청, 이상기상에 따른 여름철 과수원 관리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해마다 발생하는 이상기상에 따른 과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과 관리를 당부했다.
- 집중호우나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최근 5년간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10여년 새 7배 이상 늘었다.
-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액: 2001~2005년 1,236억 원 → 2011~2015년 8,666억 원
- 집중호우로 잠길 우려가 있거나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과수원은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경사가 심한 곳은 흙이 쓸려가지 않도록 짚이나 목초(초생 재배 : 과수원에서 깨끗이 김을 메주는 대신에 목초 녹비 등 풀을 나무 밑에 가꾸는 재배법), 필름 등으로 덮어준다.
- 물에 잠겨 흙이 묻은 잎은 최대한 빨리 맑은 물로 씻어내고, 망가진 배수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
- 침수에 약한 복숭아나무는 오래 잠겨 있으면 잎이 일찍 떨어지거나 줄기(물관부 : 식물의 뿌리로 빨아들인 물을 위쪽으로 보내기 위한 줄기 내 조직기관)가 썩을 수 있다. 최대한 물을 빨리 빼 다른 열매로 전염되지 않도록 병든 과실을 제거한다.

- 태풍이 오면 강한 바람으로 열매가 떨어지거나 잎이 찢어지고 나무 전체가 뽑혀 넘어질 수 있다. 방풍망(파풍망)을 설치해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지주(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기둥이 되어주는 철제파이프, 나무 등)로 단단히 묶어준다.
- 바람 피해가 잦은 지역이라면 처음부터 방풍망을 설치한다. 바람세기를 15~30% 줄일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느슨해진 가지도 한번 더 묶어주면(유인 작업 : 나무의 가지를 원하는 수형으로 만들거나,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묶어주는 것) 떨어지는 열매를 20%가량 줄일 수 있다.
- 나무가 쓰러졌다면 땅이 마르기 전에 세워 뿌리 주변에 흙을 채워 고정한다. 부러진 가지는 잘라내고 도포제를 바른다. 상처를 통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살균제를 뿌려둔다. 요소 비료 0.2%(1kg/500L)를 뿌리에 주거나 물에 탄 비료를 잎에 뿌려주면 자람세 회복에 도움이 된다.
- 장마·집중호우·태풍 후 고온과 강한 빛을 쬐면 열매에 데임(일소·엽소) 또는 터짐(열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토양 수분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농기원, 멜론 수경재배 스마트 양액관리기술 개발 나서

- 스마트 팜 혁신밸리 선정품목 재배기술지원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대형 유리온실과 비닐하우스에 스마트팜을 적용한 멜론 양액재배가 늘어나면서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스마트 양액관리 연구개발에 나섰다.
- 전남지역 멜론재배 면적은 344ha로 충남(522ha)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작물로 최근에는 고품에 유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의 주요작목인 딸기, 토마토와 더불어 주요 생산 품목으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양액재배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은 미진한 실정이다.
- 현재 많은 농가에서 토경재배를 하고 있는데 장기간 토양에서 재배하게 되면 덩굴쪄짐병 등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일부 수경재배 농가들도 양액관리 경험 부족으로 당도 등 품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따라서 재배농가에서는 외부기상변화 및 생육단계에 따라 정밀한 양·수분 관리가 가능한 수경재배로 연작장해를 극복하고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이 가능한 규격화된 재배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 이에 전남농기원은 일사량에 따라 멜론의 생육단계별 적정 급액량을 구명하고, 과 비대기 이후 급액량을 조절하여 당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양액관리기술 개발에 나섰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고추 흰비단병 철저한 예찰과 방제 당부

- 땅과 인접한 줄기에 흰 군사체 발생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장마철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고추 흰비단병 발생이 우려된다고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당부했다.
- 흰비단병은 고추 전체가 시들면서 말라죽은 병으로 최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병원균은 30~35℃의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잘 자라며 지표면의 줄기에 침입한다. 병에 감염된 부위는 솜털 같은 흰색의 곰팡이가 생기고 좁쌀처럼 작고 둥근 갈색의 균핵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 역병은 병원균이 물길을 따라 이동하므로 피해가 줄지어 발생하고, 줄기 내부가 연한갈색이나 암갈색으로 썩는 증상을 보인다. 또한 청고병은 세균성으로 상처 난 뿌리를 통해 침입하며, 뿌리 근처 줄기를 잘라 물이 담긴 투명한 용기에 담갔을 때 우윳빛 세균이 흘러나온다.
- 반면 흰비단병은 병원균이 군데군데 발생하고, 땅과 인접한 부위를 손으로 눌러보았을 때 표면이 쉽게 벗겨지며, 흰색의 군사체가 발생한다는 것이 역병과의 큰 차이점이다.
-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양이 너무 다습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발병초기에 적용 약제를 뿌리 주변에 뿌려주어야 하며, 병든 식물체의 경우 뿌리까지 제거한 후 적용약제를 처리해야 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풀무치 이용 반려견 보조사료 개발 나서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잡업연구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 건강에 도움이 되는 “풀무치를 이용한 고단백 기능성 보조사료” 개발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 곤충잡업연구소는 그동안 풀무치의 대량사육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사육 밀도와 산란처 선발 등 적정 사육 환경 조건을 제시하고 영양성분이 가장 우수한 최적 수확시기를 구명하였다.
- 또한 기능성분 분석과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감칠맛의 대표 물질인 글루탐산과 피부재생 효과가 있는 프롤린, 신경안정에 도움을 주는 발린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 현재 풀무치 분말을 첨가한 반려견 보조사료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노령견용, 모질개선용 등 다양한 기능성 용도와 통조림 형태의 습식형, 저키 형태의 반습식형 등 제형을 연구하여 시제품을 제작중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업연구소 김현진 연구사는 “곤충을 이용한 반려견 보조사료 개발로 곤충 사육농가의 새로운 판로 확보와 반려견 인구에 고품질 보조사료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팜 산업 발전 위한 발판 다진다”

- 농촌진흥청, 1일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협약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일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회장 박현출)와 본청 제2 회의실에서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
- 두 기관은 농업의 혁신 성장,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표준화, 농가 교육·보급 등에 뜻을 같이 하고자 이날 협약식을 마련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팜 모델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기술 교류, 스마트팜 기술 개발 수요 조사와 분석, 스마트팜 보급과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혁신, 제도 지원 등이다.
- 또한, 각 기관의 기술 자원인 스마트팜 연구 개발 결과(농촌진흥청)와 정보통신기술 기자재·시스템 표준화, 농가 교육(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연계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두 기관의 기술과 자원을 활용한 협력 체계를 마련해 스마트팜 산업 발전과 농업의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아토피 완화하는 토종 유산균, 치즈로 먹어도 효과

- 한 달 간 매일 먹이니 피부염 원인 세포 수 절반으로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자체 개발한 토종 유산균을 넣은 축산 식품이 아토피 피부염 완화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 이 유산균은 한국인 신생아 장에서 찾아낸 비피도박테리움 롱검(KACC 91563)균으로, 앞서 알레르기 억제와 아토피 억제효과를 확인했다.
- 정부 혁신의 하나로 추진한 이번 연구는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의 축산식품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 연구진은 전북대학교와 함께 실험동물에 아토피 피부염 발생을 유도한 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첨가한 발효소시지와 크박치즈를 한 달간 매일 먹인 두 집단과 대조군을 비교실험 하였다.
- 치즈나 소시지를 먹이지 않은 대조군은 아토피 피부염으로 귀 조직이 두꺼워졌으며 자주 긁었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첨가한 크박치즈를 먹인 집단은 귀 두께와 피부염의 원인 세포(mast cell) 수 모두 대조군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발효소시지를 먹인 집단도 긁는 횟수가 38.8% 줄었다.
- 치즈, 소시지 등에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넣어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물이용과장은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균을 축산식품 제조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7월 전통주에 담양 죽향도가 ‘천년담주’

- 전통 누룩과 천연벌꿀 사용한 최고급 청주 -

- 전라남도가 7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담양’ 지명 1천년의 역사를 의미해 명명한 죽향도가의 ‘천년담주’를 선정했다.
- 천년담주는 담양에서 생산된 친환경쌀과 직접 띄운 전통누룩을 장기 저온 발효해 숙취성분 아세트 알데하이드를 제거해 제조했다. 일체의 인공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생대나무 분말과 갈대뿌리, 국내산 천연벌꿀을 원료로 해 깔끔하고 감칠맛이 뛰어나다.
- 담양 죽향도가는 1932년부터 3대를 이어 전통주를 제조해온 업체다.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전통주를 고급화하고 있다. 특히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에서 고급 생막걸리인 프리미엄 대대포 블루라벨(Blue label)로 우리 술 품질인증(국가지정-가-50)을 취득해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전국 유통망을 가지고 있다.
- 전통주 마니아층을 위해 천년담주를 출시, 2019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 약·청주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대대포 블루라벨에 이어 담양 죽향도가가 전통주의 우수성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천년담주는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전통주”라며 “전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천년담주’의 소비자 판매 가격은 500ml/ac1.15% 1병 기준 1만 원으로 전화(061-381-8700)로 구입할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



농촌진흥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농업시설 안전점검 실시

- 누전 · 감전 사고예방 위해 농촌지역 시설하우스 · 축사 점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7~8월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누전과 감전 등 농촌지역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컨설팅) 활동에 나선다.
- 이번 점검 대상은 전기시설이 설치된 시설하우스와 축사이며,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사전 안전점검을 신청한 14개 시·군 27농가이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가들은 전선피복의 손상여부 확인, 전기설비 노후여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살펴보고 전기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폭우와 침수 발생을 대비해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은 시설하우스와 축사에 설치된 온도관리 시설을 점검하고,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시설 내 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가축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관리요령 등을 상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한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농업시설물 전기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을 중심으로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농업인 대상 전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진행 중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 농업박람회 성공 퍼포먼스

- 김영록 지사 시구이용재 의장 시타...직원 600여 명 홍보활동 -

-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4일 광주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서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2019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기원 D-100일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시구, 이용재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시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전남도청 직원 600여 명이 참석해 전라남도 대표 국제행사인 농업박람회를 전국에 알리는 홍보활동에 나섰다.
- 이들은 국제농업박람회 마스코트인 ‘쌀이’와 ‘콩이’, 주제인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등이 새겨진 하얀색 티를 입고, 관람객들에게 홍보전단을 나눠준 후, 경기 시작과 함께 단체 응원을 펼쳤다.
- 이날 D-100일 이벤트를 지켜본 관람객은 “이렇게 많은 수의 도청 직원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국제농업박람회’를 홍보하는 행사가 인상 깊었다”며 “올해 2019국제농업박람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오는 9일 D-100일 맞이하는 ‘2019국제농업박람회’는 세계 20개 나라 380개 기관단체기업이 함께 하는 국제행사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려 농업인에게는 세계시장 판로 개척의 기회를,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 복구 91억 지원

- 예비비 사용해 피해농가 경영 안정 위한 신속한 지원 나서 -

- 전라남도는 봄철 이상저온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91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 이번에 지원되는 복구비는 지난 3~4월 이상저온으로 개화 중인 배, 복숭아 등 과수를 중심으로 나주, 보성, 화순 등 18개 시군에서 3천903ha의 농작물이 저온피해를 입은데 따른 것이다.
-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은 본격적 개화기를 1주일여 앞둔 지난 4월 아침 기온이 영하 4℃까지 떨어지는 등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했다.
- 이 때문에 꽃망울을 머금은 채 개화를 앞둔 배꽃봉우리가 얼고 암술 씨방은 까맣게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나, 열매가 맺혀도 발육 부진으로 출하기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저온피해를 입었다.
- 전라남도는 재해피해 복구비 91억 원 가운데 도비 부담액 14억 원은 예비비를 사용한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나 생계비를 지원받고 1~2년간 농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등 혜택도 받는다.
-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피해농가에 복구비를 신속 지급하기 위해 국도비 77억 원을 시군에 송금했다”며 “기상이변에 따라 농작물 재해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독일산 돼지고기 현물확인, 정밀검사 등 검역강화

- 필리핀의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잠정중단에 따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독일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에 대하여 현물검사를 강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 최근 필리핀 정부가 독일산 수입 돼지고기에 폴란드산 돼지고기 상자가 일부 혼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잠정중단(7월 1일)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강화조치를 취한 것이다.
- 현재 검역이 완료되어 검역시행장(냉동창고)내 보관중인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출고를 즉시 중지시키고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가 혼입되지 않았는지를 전량 확인할 계획이다.
- 앞으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현물확인을 강화하고 필리핀에서 문제가 된 업체에서 수입되는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매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확인과정에서 폴란드 등 타국산 돼지고기 혼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은 폐기하고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중단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양파, 마늘 소비촉진을 위해 농림가족이 나섰다!

- 11만 농림가족이 함께하는 ‘양파·마늘 사랑 캠페인’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양파, 마늘이 기상여건 등에 따른 작황호조로 평년보다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11만 농림가족이 모두 참여하는 양파·마늘 소비촉진 이어달리기 행사를 농식품부를 시작(7.3.)으로 한 달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최근 기상여건 등 작황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난 양파, 마늘 농산물 및 가공제품(즙, 짬아찌, 환 등)으로 모든 기관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소비촉진을 홍보하고 사전 판매접수를 받는다.
- 7월 3일 세종시 농식품부 행사장에서는 양파와 마늘의 효능, 선택법, 대표 요리를 소개하는 전단지과 함께 가정에서 간단하게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조리법도 제공하였다.
- 이날 농식품부 장관은 “11만 농림가족이 농업인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정을 서로 나누는 따뜻한 행사를 마련했으며, 농림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 또한, “각계각층에서도 주요 농산물의 공급과잉에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범 국민적 소비촉진 할인 행사 노력에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나주시, 서울에서 플럼코트 등 농산물 신제품 판촉 행사 진행

- 본25~26일 이틀 간, 서울 신도림역 일원에서 시식&나눔 행사 개최 -

- 전남 나주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수도권 내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시 신도림역 일원에서 지역 농산물 신제품 시식 및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나주시 농어업회의소가 주관한 ‘우리농산물 더하기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자두와 살구 교배종인 ‘플럼코트’를 비롯해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아로니아즙’ 등을 도시민에게 선보였다.
- 특히 농산물 시식 후, 맛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설문 참여자들에게 플럼코트,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생과, 아로니아즙, 배즙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패키지 상품을 나눠주는 등 큰관심과 인기를 끌었다.
-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럼코트를 처음 알았다’는 문항에 대상자 중 80.3%가 ‘그렇다’라고 했으며, 재 구매 의사를 묻는 문항에는 93.5%가 ‘재 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하는 등 신제품의 맛과 효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플럼코트 1.3t, 아로니아 가공품 100여개 등을 판매하는 실적도 올렸다.

*출처 : 나주시



나주시, 고추 바이러스 ‘칼라병’ 급증 ... 방제 철저 당부

- 바이러스 매개충 총채벌레 방제 중요 ... 4~5일 간격 2~3회 살포 -

- 나주시는 올봄 따듯하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농작물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채벌레 번식 증가로 최근 고추 재배 농가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농가의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특히 ‘칼라병’으로 불리는 ‘토마토반점 위조바이러스(TSWV)’는 총채벌레에 의해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초기 방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 포장으로 전염될 위험성이 높아, 농가의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
- ‘칼라병’은 고추, 토마토 등 1,200여 종의 식물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고추는 새순이 괴사되거나 잎이 노랗게 변질되고, 과실에는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겨 상품성을 잃게 만든다. 병이 심해질 경우, 식물 전체가 말라 죽게 된다.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감염된 고추는 최대한 빨리 비료 포대 등에 격리 처리해 다른 고추에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칼라병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전염 속도가 빨라 피해가 크지만 매개충인 총채벌레를 초기 방제하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작용 기작이 다른 총채벌레 등록약제를 4~5일 간격으로 2~3회 주기적으로 살포해, 총채벌레 밀도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나주시



나주시,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복구비용 48억 원 확정

- 3~4월 중 이상저온 피해 면적 약 1,825ha 국비 배정 후,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 -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4월 중 발생했던 이상저온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 농작물 재해 복구비용 48억 원을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 시에 따르면 4월 1~4일 동안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른 피해 면적은 약 1,825ha로 작물별로 배 1,729.9ha, 복숭아 27.7ha, 단감 31.8ha, 기타 과수 35.9ha와 특작(담배) 2.5ha 등으로 조사됐다.
- 재해복구비는 국비 34억, 도비 7억, 시비 7억 등 48억 원 규모로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 대상 생계지원비, 농약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고등학교학자금 면제(6개월 분) 비용 등이 지원된다.
- 시는 국비 배정 이후, 2회 추경 등을 통해 시비를 확보, 피해농가에 복구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 아울러, 경미한 피해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1농가(3.7ha)에 대해서는 ‘나주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가들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갈 것”이라며, “예측 불가능한 이상저온으로 지역 농작물 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해 대응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나주시



보성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전 공동방제 추진

-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28일 농업기술센터 중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영농철 적기 방제를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날 협의회에는 식물방제공무원 및 지역농협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하여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 또한, 식물방역법에 근거하여 벼농사 대상면적(7,350ha)에 줄무늬잎마름병(애멸구), 벼멸구, 먹노린재, 흰잎마름병, 세균성벼알마름병 등에 사업비 200백만 원을 투입하여 사전방제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보성군은 이후 시기별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농작물 병해충을 모니터링하고,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초기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군은 병해충 발생예찰로 농작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초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돼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병해충 방제 약제를 조기 공급함으로써 농가피해를 예방하여 고품질 보성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 농가가 동시 공동방제로 완벽한 초기 방제를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보성군



화순군, 달고 아삭아삭한 초당옥수수 수확

- ‘틈새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 기대 -

- 4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7월 중순 화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노지 재배한 초당옥수수를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화순군은 당도가 높아 ‘초당(Super sweet corn)’이라 불리는 초당옥수수를 틈새 소득 작목으로 도입했고 농가에서 올해 처음 재배를 시작했다.
- 초당옥수수는 아삭아삭한 식감과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이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생으로 먹거나 전자레인지에서 3~5분만 돌려 익혀 먹을 수 있다. 껍질만 벗기기고 생것으로 먹어도 특유의 향과 맛이 뛰어나 무더운 여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 초당옥수수는 기존 옥수수와 비교해 칼로리는 낮고, 당도는 높아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 초당옥수수는 물에 삶으면 맛과 식감이 떨어지고 보관 시간이 길어지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먹는 것이 좋다.
- 군에 따르면, 초당옥수수를 하우스 재배한 농가가 지난 6월 일반 옥수수 가격보다 1.5배 비싸게 판매해 고소득을 올렸다. 이 농가는 소비자 반응이 좋아 가을 재배도 고려하고 있다.
-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초당옥수수는 발아율이 떨어지는 등 재배 초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육과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화순군



화순군, 연정영농조합 친환경채소 전문단지 공모 선정

- 화순군(군수 구충곤) 연정 영농조합이 전라남도가 공모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육묘장 조성 지원사업’ 공개발표 평가에서 3위로 선정됐다.
- 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8곳(단지 6, 육묘장 2)이 참여해 5곳(단지 4, 육묘장 1)이 선정됐다.
- 화순군에서는 연정 영농조합법인이 2억5700만 원을 신청해 2억3200만 원이 선정됐다. 친환경 육묘장 1320㎡ 조성과 무인자동방제기, 과채류 압축기 구입 비용 등을 60% 보조받을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은 벼 중심의 친환경단지에서 과수·채소 중심의 친환경 농산물로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친환경 과수·채소를 1ha 이상 생산하거나 생산 예정인 농업인,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 화순군에는 친환경을 육묘할 전문시설이 없어 자가 육묘를 하거나 먼 거리의 친환경 육묘시설을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정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친환경 채소단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연정 영농조합법인은 고추 등 43품목의 유기농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유기농 1.1ha, 무농약 3ha를 재배하며, 농가의 관행 재배 면적 2.3ha를 친환경 재배로 확대하고 있다.
- 친환경 육묘장이 건축되면 친환경 육묘와 재배기술을 보급해 2023년에는 친환경단지를 11ha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화순군



영암군, 시설하우스 고온스팀 토양소독으로 친환경 농업 앞당겨

- 영암군은 7월 2일 도포면 김용익 농가 하우스에서 시설채소 토양병해충 방제를 위한 친환경 고온스팀 토양소독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에 시연한 친환경 토양소독기는 농약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220℃ 고온 수증기를 토양 30cm까지 투입하여 소독하는 방법이다.
- 일반적으로 농가들은 토양선충 및 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토양에 농약을 살포 후 20일간 비닐 멀칭하여 토양을 소독한다. 이러한 방법은 농약비용 및 토양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농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 고온스팀을 통한 친환경 방법으로 토양소독이 이루어진다면 농약으로부터 토양이나 수질을 보호할 수 있고 소독기간이 짧아 농가 경영측면에서 효율적이다.
- 영암군 관계자는 “시설하우스 토양전염성 병해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육성하여 많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교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영암군



영암군,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영암멜론” 본격 출하

-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대체작물로 “영암멜론”각광 -

- 부드러운 식감과 당도가 높은 과일로 알려져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전 연령층에게 선호도가 높은 영암멜론이 7월 초부터 본격 출하된다.
- 영암에서 생산되는 멜론은 풍부한 일조량과 최적의 생육조건에서 재배되고 있어 타 지역 멜론보다 당도가 높다.
- 군(군수 전동평)에서는 공동 선별지원 사업, 읍면 특성화사업,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전자상거래 택배비 등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 및 품질을 향상시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체작물 육성과 함께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 멜론에는 비타민C, 비타민A, 칼슘, 판토텐산 등이 함유돼 있어 노폐물을 빨리 밖으로 보내주는 작용을 도와주고 피로회복, 변비에도 도움을 준다고 전해지고 있다.
- 영암농주농협(조합장 이재면)은 “영암군의 아낌없는 지원과 멜론 공선출하 회원들의 노력으로 케이멜론이 고품질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최고의 멜론을 생산해 국내는 물론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영암군



2019년 7월 일본 주요 채소 생육상황 및 가격전망

- 생육상황 및 가격전망 개요 -

- 일본 농림수산성은 최근 수년간 일기불순에 따른 채소가격 변동으로 2011년부터 주산지, 도매법인, 중간사업자 등으로부터 주요 채소류에 대한 생육상황과 가격전망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 생육상황 및 가격전망은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에 입·출하되는 채소를 기준으로 함

- 현재 생육상황 -

품목	현재 생육상황
근채류 (당근, 무)	▪ 주산지인 북해도 및 아오모리현에서 5월부터 6월에 걸친 적은 강우량에 따라 크기는 완만하고 약간 자그마함
엽경채류 (배추, 양배추 등)	▪ 5월 하순 이후의 기온상승과 6월 중순이후 강우로 생육이 회복, 평년 수준
과채류 (오이, 가지 등)	▪ 생육은 평년수준
토물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 감자 및 고구마는 평년수준 ▪ 양파는 생육기간 기온이 평년을 상회하여 생육 상황이 좋으며, 사가현의 양파는 이미 수확이 종료되어 저장 양파를 출하하고 있음

- 품목별 생육, 출하 및 가격전망(7월) -

품목	주산지 0는 전년동기 입하비율	생육 및 출하전망	가격전망 (최근 5개년 평년대비)	
			7월전반	7월후반
무	북해도(52%) 마오모리(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에서 6월 하순 이후 강우에 따라 생육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생육 회복에 따라 7월 출하수량, 가격은 평년수준 유지 전망 	평년 수준	평년 수준
당근	마오모리(49%) 북해도(28%) 치바(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가 막바지에 다른 치바현에서 적당한 강우량으로 생육은 평년수준. · 후속산지인 마오모리현과 북해도에서 6월 하순이후 강우에 의해 생육이 회복될 전망 · 7월 출하수량과 가격은 평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평년 수준	평년 수준
배추	나가노(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노현에서 6월 중순이후 강우에 의해 생육이 회복하여 평년수준. 7월이후, 경장이 진행되고 알이 커질 전망 · 7월 추하량은 평년을 상회하고 가격은 평년보다 떨어질 전망 	하락	하락
양배추	군마(72%) 이와테(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에서 5월 하순이후 기온상승과 6월 중순이후(군마현은 5월 하순이후) 강우에 의해 생육이 회복되어 평년수준 · 7월 출하량 및 가격은 평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평년 수준	평년 수준
시금치	군마(33%) 토치기(27%) 이바라키(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의 생육이 평년수준임에 따라 7월 출하수량 및 가격은 평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평년 수준	평년 수준
파	이바라키(55%) 치바(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의 생육이 평년수준임에 따라 7월 출하수량 및 가격은 평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평년 수준	평년 수준
양상추	나가노(85%) 군마(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에서 6월 중순이후 강우에 의해 생육이 회복되어 평년수준 · 7월 출하수량 및 가격은 평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평년 수준	평년 수준
오이	후쿠시마(41%) 이와테(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의 생육이 평년수준임에 따라 7월 출하수량 및 가격은 평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평년 수준	평년 수준
가지	군마(33%) 이바라키(23%) 토치기(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의 생육이 평년수준임에 따라 7월 출하수량 및 가격은 평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평년 수준	평년 수준
토마토	마오모리(15%) 북해도(14%) 이와테(12%) 토치기(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산지의 생육이 평년수준임에 따라 7월 출하수량 및 가격은 평년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평년 수준	평년 수준

- 시사점 -

- 최근 한국에는 배추, 양파, 마늘 등 주요 품목의 공급 과다로 '풍년의 역설'에 울고 있다. 일본도 한국과 유사한 농업환경 등으로 양파, 배추 등 일부 품목은 공급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일 신선농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특히 올해 일본의 배추 작황은 전년과 달리 풍작으로 수량이 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자국산 배추를 이용한 김치 제조가 확대되면서 한국산 김치 대일본수출도 감소하고 있다.('19.5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수출금액 1.1% 감소)
- 일본은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임에 따라 대일 수출과 연관되는 주요 품목의 산지정보, 가격, 수급상황 등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미국 신선식품 시장 증가세

- 신선식품 시장 꾸준한 성장세 -

- 건강식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신선식품 매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국 내 신선식품 전체 매출은 2,175억1,220만 달러로 2014년과 비교해 약 6% 증가했다.
- 가공과정을 최소화한 ‘클린식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자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신선식품, 특히 로컬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날로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친환경적 소비 역시 신선식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건강 트렌드’ 성장에 가장 큰 요인 -

- 건강한 식습관은 2018년 신선식품 시장 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은 비만율이 30%에 달하며 OECD 비만통계 순위에서도 항상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데, 때문에 자국민의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소다세 부과 등의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신선식품 매출 동향

(단위 : 백만달러)

	2014	2015	2016	2017	2018
계란	11,804.08	11,743.80	8,954.80	8,310.00	9,701.40
생선, 수산물	16,968.10	17,424.80	17,794.7	18,402.20	19,256.70
과일	53,299.40	54,627.40	56,945.20	57,241.30	57,656.60
육류	73,572.20	77,845.90	76,256.50	76,692.90	78,458.60
넛트류	1,101.30	1,158.50	1,280.10	1,270.80	1,307.90
뿌리채소류	5,577.10	5,754.0	5,780.20	5,970.0	5,993.1
채소류	39,488.0	39,757.60	40,266.50	40,618.40	41,235.30
전체	205,603.20	212,257.70	211,124.60	212,347.10	217,512.20

미국 내 신선식품 예상 매출액

(단위 : 백만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3
계란	9,859.90	10,076.30	10,243.20	10,397.50	10,539.90
생선, 수산물	19,496.10	19,691.60	19,854.60	19,990.70	20,105.00
과일	57,655.20	57,632.40	57,608.40	57,601.60	57,607.70
육류	79,447.20	80,370.70	81,157.20	81,831.70	82,414.70
넛트류	1,325.60	1,342.10	1,357.40	1,371.50	1,384.60
뿌리채소류	5,966.40	5,954.30	5,949.30	5,949.60	5,953.80
채소류	41,819.60	42,448.50	43,103.70	43,787.40	44,502.50
전체	219,559.80	221,515.70	223,315.00	225,009.50	226,623.00

- 신선식품 판매 채널 확대 -

- 신선식품의 판매는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신선함이 생명인 품목인만큼, 소비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고르며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신선식품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장을 통한 소비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8년 온라인 시장에서 신선식품 판매는 두 자리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 시장은 미미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편의성에 대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역시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 아마존 프레시(AmazonFresh)는 미 전역 당일배송(same-day delivery)를 내놓고 있으며 월마트 역시 온라인 구입 고객을 통해 매장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인스타카트(Instacart)와 같은 제 3자업체 역시 스마트폰 앱으로 손쉽게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알디(ALDI), 코스트코, 퍼블릭스 등 다양한 소매업체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은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 패스트푸드도 신선바람 -

- 신선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니즈는 패스트푸드업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맥도날드는 신선육을 더한 버거 제품을 출시하며 매출 증가에 독특한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 지난 6월 24일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육을 사용해 판매한 쿼터 파운드 버거의 지난 1년간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
- 맥도날드는 원재료 투명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변화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맥도날드는 재료 공급과정에서 포장재 변경, 냉장시설 확대, 재료 운송 트럭에 온도조절시스템 개선, 맥도날드 매장 조리 직원들의 음식 안전 교육 이수 등 신선육의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더했다고 밝혔다.

- 시사점 -

- 건강에 대한 소비, ‘클린이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선식품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색다름에 대한 수요 역시 존재하는 만큼 한국산 배, 한국산 버섯 등 신선식품도 새로움을 더한 건강한 신선식품으로 시장 개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7. 08. 시카고 선물거래소)

- 대두 선물가격, 미국의 농작물 날씨가 개선되고 풍부한 비축량 때문에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2%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미국의 7월 4일 공휴일에 이어 금요일 소폭의 기술 매수세와 옥수수 강세로 인해 상승 마감했다. 시카고 거래소 9월의 연질적색 겨울 밀 WU9는 1센트 상승한 부셸 당 5.15달러로 마감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5%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금요일 기술 매수와 미국 농산물 생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마감되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5%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금요일 미국의 농작물 날씨 개선과 미국의 비교적 풍부한 비축량 때문에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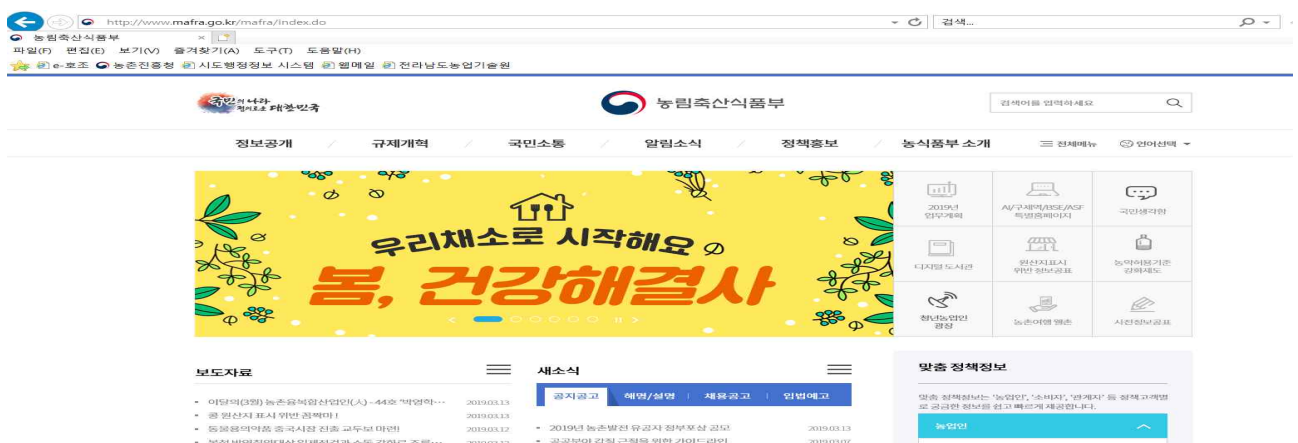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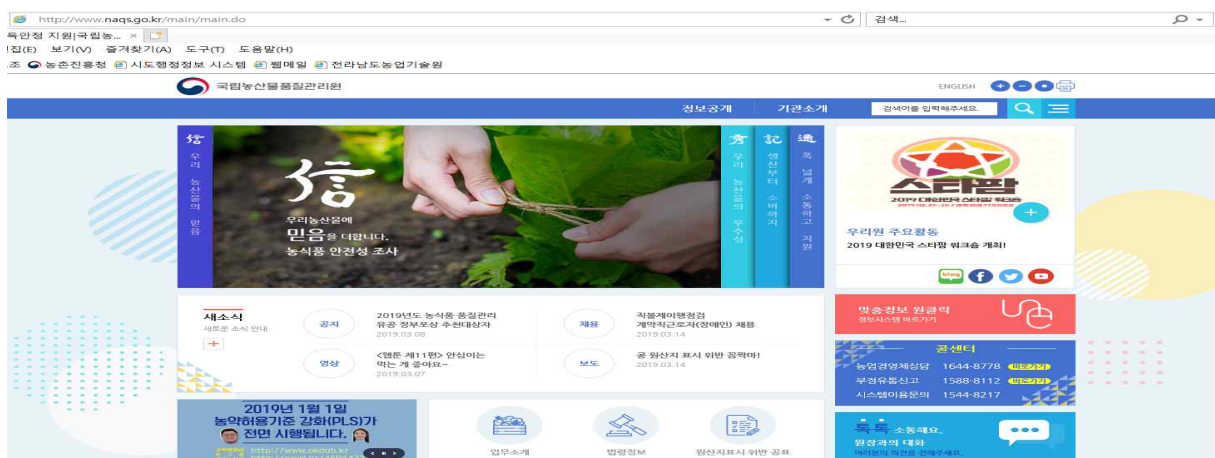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정보공개, 규제개혁, 국민소통, 알림소식, 정책홍보, 농식품부 소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규제개혁에서는 규제개혁과제 현황, 심사중인 규제법안, 규제개선 보도자료, 규제법령정보, 규제혁신 홍보자료, 규제개혁 신문고, 규제정보포털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소통에서는 신고센터, 국민참여, 전자민원, 법령정보, 통계정보, 물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신고센터에서는 클린신고센터, 부정유통신고,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신고, 안전신문고 등
 - 국민참여에서는 제도개선 및 공정사회 제안,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자공청회 등
 - 법령정보에서는 현행법령, 훈령·예규·고시, 최근제개정법령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사에 필요한 법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법령자료에서는 농식품 안전관리,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 농가 소득안정 지원, 농식품 산업육성 지원, 업무지원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각 업무명에 따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및 타부서 행정규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행정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 안전관리의 업무명은 실태조사, 규제조사, 정책지원,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사료검사, 친환경인증기관 관리 등
 -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의 업무명은 원산지표시 관리,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 원산지인증제, 부정유통신고, 양곡표시 관리 등
 - 농가 소득안정 지원의 업무명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직불제 이행점검, 농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직불제
 - 농식품 산업육성 지원의 업무명은 우수식품 인증관리, 전통주 교육기관 지정관리, 술 품질인증관리 등
 - 업무지원은 개인정보보호, 인사, 국유재산관리, 세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 농사에 필요한 법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www.gap.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GAP관리시설, GAP인증기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정보조괴, 팜투테이블, 정보광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GAP(농산물우수관리)에서는 제도소개, 인증신청절차 및 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 GAP관리시설에서는 제도소개, 지정신청절차 및 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 GAP인증기관에서는 제도소개, 지정신청 요령,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서는 제도소개, 등록신청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청렴한세상 - 청탁금지법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41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